

전통문화유산 사진 콘텐츠로 확보한다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9월 25일~10월 24일 응모

전통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는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표현한 사진 공모를 통해 전통문화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우수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자 공모전을 마련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 관련 사진 콘텐츠를 개발, 확보하고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하고 활용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의 콘텐츠 확보 △전통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 발굴 △기록과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지속적 관심 유도 △신진 사진작가 발굴 및 양성 △전통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홍보 등을 펼칠 계획이다.

작품은 전국의 유무형 문화재,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민속문화재, 전통문화체험 등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잘 표현한 사진이어야 한다.

응모 기간은 9월 25일~10월 24일까지며 전통문화의 범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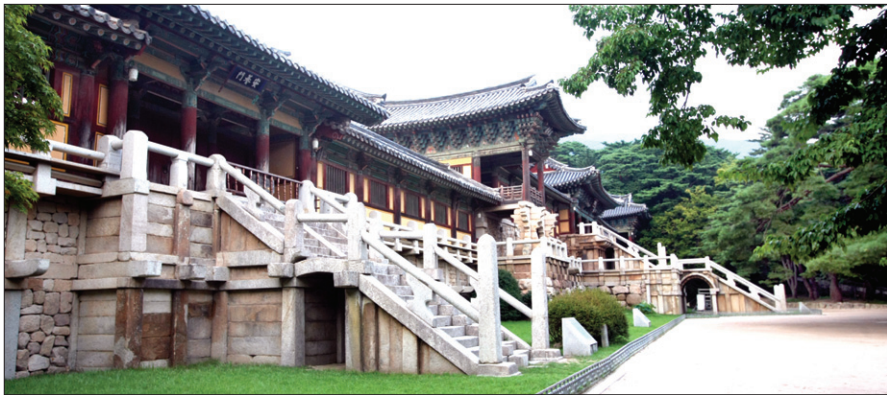
(http://www.cha.go.kr)의 '문화유산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는 디지털 JPG 파일(5MB이하) 3000픽셀 이상 크기이며 사진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http://ktpcphoto.kr)하면 된다.

필름은 '8×10' 인치 규격의 인화사진으로 접수신청서를 출력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은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전법회관 5층 전통문화사진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출품수는 1인 3점 이내(디지털, 필름 통합)이며 출품료는 없다.

입상작과 상금은 각각 △대상 1명(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3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100만원) △장려상 3명(상금 50만원) △특선 10명(상금 30만원) △입선 30명(상금 10만원) 등이다. 입상작발표는 11월 초(예정) 개별통보 및 사진공모전 홈페이지(http://ktpcphoto.kr), 불교신문 홈페이지(www.ibulgyo.com)에서 공고한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2013년 11월 중에 추후 통보된다. (02)730-4488

정혜숙 기자



조계종 문화부가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작품은 전통문화 관련 사진이면 가능하다. 사진은 불국사 전경. <현대불교 DB사진>

분당 대광사 다문화가족 가을빛예술제

9월 1일 오후 7시, 야외 특설무대서 열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합의 장이 열린다.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는 9월 1일 오후 7시 경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다문화 가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빛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과 합창단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진다.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은 사전 오디션을 통과

한 10개 팀의 경연으로 진행되며, 금·은·동상(2팀) 등 총 4팀에 시상한다. 2부에는 가수 송창식 씨를 비롯해 정태춘·박은옥 씨, 힐링명상가 김태곤 씨 등이 출연한다. 또 7인조 성악양상블 '칸투스' 및 대광사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진다.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는 2009년 청소년을 위한 산사음악회로 시작돼 지난해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로 봉행돼 왔다. 올해는 특히 지역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성남 시민 등 1,500여 명이 동점할 예정이다. (031)715-3000 김주일 기자

행복 바이러스 전파하는 '천진불 미소'

수진 스님 첫개인전 '천진불'展...8월 23일~29일 나무갤러리서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리는 아기부처님, 자전거를 탄 동자승, 아기를 안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이 닥종이 공예로 되살아났다.

수진 스님(조계종 문화국장·사진)의 첫개인전 '천진불'이 8월 23일~29일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동자승과 불보살이 함께하는 모습을 한지공예로 표현했다. "5년전부터 한지 공예를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것을 한지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공방의 원장님께서 불보살님을 한지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 못 보았다며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스님은 그때까지 불보살을 한지 공예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공방 원장님의 조언에 힘입어 불보살을 닥종이 인형으로 표현해보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렇게 2년 6개월 동안 스님은 현재 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닥종이 공예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스님의 머릿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불보살과 동자승으로 가득 차고 천진불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작품으로 옮기니 동자승 아기부처님 나한 산신 비천 등 41점의 작품이 되었다.

다종이로 만든 작품들은 그 동작 하나하나도 너무 섬세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있는 아기 부처님은 곧 내 옆에서 음악을 들려줄 듯하고 동자승과 아기부처님이 함께 인라인을 타는 작

품은 우리 동네 공원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는 얼굴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근엄하거나 딱딱하기만 한 절집의 불보살님이 아니라 친해지고 싶고 함께 뛰어놀고 싶은 동무 같은 느낌을 준다.

스님은 이 작품들을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대중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고자 했다. "사람들이 불교를 너무 근엄하고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친근한 작품들을 일상에 자주 만날 수 있다면 대중들이 불교를 대하는 마음이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이

친근한 불교 포교 원력 세워
불보살 닥종이 공예로 재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품 작업
"불교상징물로 희망 전하고파"

렇게 원력을 세우고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다 보니 표정도 몸짓도 다 제 각각인 인형들을 보며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행복하기만 했어요. 많은 불자들이 제 작품을 보고 기쁨과 희망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가 모태가 되어 불보살을 닥종이로 만드는 대중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원력만 있으면 누구나 한지로도 부처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닥종이 공예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말한다.

"공방을 다니며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이 와서 닥종이 공예를 통해 치유를 받고 가는 경우를 꽤 봤어요. 스스로 힐링이 되고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닥종이 공예예요. 그러니 불보살님의 모습들을 만들어 내는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명상이고 기



다종이 공예로 불보살을 표현한 수진 스님의 첫개인전 '천진불'展이 8월 23일~29일 조계사 경내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불보살과 동자승의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닥종이로 표현했다.

도죠."

한국예원문화협회 권영인 이사장은 수진 스님의 이번 개인전이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권 이사장은 "부처님, 보살, 산신, 나한, 동자승 등 다양한 불교의 상징을 우리나라 전통한지에 담아낸 이전 전시는 닥종이공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불교를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전시

는 한지공예가 불교포교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로 절집에 있는 무엇든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스님은 불전함 화병 불기까지 한지로 만들만큼 한지공예품 만들기에 몰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님은 한지를 통해 우리 불교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010)6263-3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스탄불서 꽃피는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ON KOREA · 실크로드의 저편'展...8월 31일~9월 22일 탁심공화국 갤러리서

경주의 마애불 삼층탑 등 한국 문화유산을 담은 사진들이 2013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선보인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조직위원회는 'ON KOREA · 실크로드의 저편'展을 8월 31일~9월 22일 이스탄불 탁심공화국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현대 대표사진작가 8인의 사진 180여점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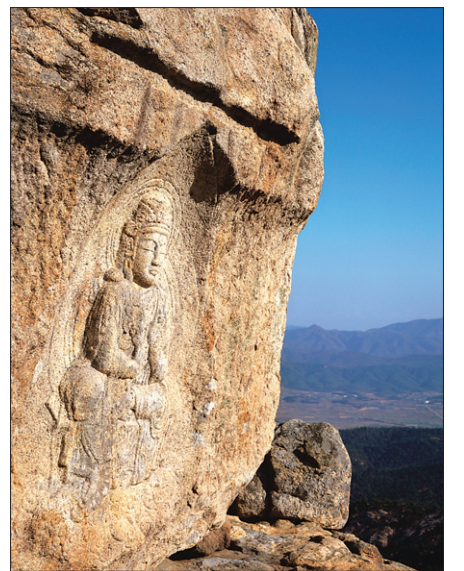
기획자 석재현 씨(대구 미래대 교수)는 "천년 고도 경주의 정신과 문화 유적을 비

롯한 한국 문화를 담은 이번 사진전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들을 담은 인물사진과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를 상징하는 DMZ를 촬영한 작품도 있다"고 전한다.

참여작가는 강운구, 구보창, 김중만, 박종우, 서현강, 오형근, 육명심, 이갑철 등이며 특히 강운구 작가의 경주 남산 사진들은 눈길을 끈다. 탐골사방불, 봉화골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용장골 용장사 터의

삼층석탑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한다.

한국 대표 사진가 8명이 펼친 'ON KOREA · 실크로드 저편'은 때론 선명하게 때론 강렬하게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옛 모습과 천년 문화를 간직한 문화유산, 한국인이 밟고 사는 땅, 그리고 현재를 사는 한국의 젊은이들까지 한국의 이미지를 관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19)9021-3989 정혜숙 기자



강운구 작가의 경주 남산 '봉화골 신선암 마애관음보살상'

2013년 9월 제 4기 마음치유사 2급 지도자 과정 안내

마음치유사란?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치유와 예방, 그리고 교육과 수련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치유사 4기 모집 (1년 과정)

강 의 명	강 사	개 요	강의시간	요 일
자비명상과 긍정심리 I, II	1 마가스님	자기를 변화 시키는 강력한 프로그램인 자비명상은 모든 명상과 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13:00 ~ 15:30	수요일
	2 이지원			
마음치유와 불교수행 I, II (불교수행과 알아차림 명상)	1 황수경	처음 시작하는 마음치유사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불교수행 및 수행 실습을 통해 스스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강좌	15:50 ~ 18:20	수요일
	2 김열권			
마음치유의 실제 I, II (명상지도법, 미술치료)	1 이운	실제 강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상지도법과 지도안 작성을 통한 강의 시연 및 미술치료를 활용한 자기 정화와 치유를 공부할 수 있는 강좌	13:00 ~ 15:30	목요일
	2 담소스님			
마음치유의 원리 I, II (현대심리학, 상담사례)	1 김진디	마음 치유의 근간이 되는 현대 심리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필수 이론을 공부하는 강좌	15:50 ~ 18:20	목요일
	2 김혜원			

마음치유사 지도자 과정 공개강좌 ▶일 시 : 8월 24일 (토) 2시 ~ 4시 ▶장 소 :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

스님들을 위한 자비명상 과정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

① 일반 과정 : 9월 매주 금요일 오후 2 ~ 5시 (15주)
 ② 지도자과정 : 매일 1회 1박 2일 (1년과정, 용인 행복선원)
 ▶ 공개 강 좌 : 8월 28 ~ 29일 문의 : 070-4159-2456

차 명상 치유 지도자 과정 (1년 2학기, 30주 수업 + 3박4일 워크샵)

과정명	강 사	강의시간	요일	수 강 료
차 명상 치유 지도자 과정	심상숙, 마가스님, 박경준,조기형	14:00 ~ 16:00 (2시간)	월요일	130만원 (워크샵 비용 별도)

한국 마음치유협회
Korea Mind Healing Association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및 접수 : 02)2260-3728~30 (동국대 평생교육원) / 홈페이지 : http://edulife.dongguk.edu